

## 북중 접경지역의 풍성한 ‘사실’이 던지는 질문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국경도시 단동을 읽는 문화인류학 가이드』 (강주원, 글항아리, 2013)

『북 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 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이옥희, 푸른길, 2011)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2017)

이경수 (서울연구원)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한반도 내에서 국경을 마주한 적이 없다. 국경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이며 여기서 나라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sup>1)</sup>이다. 나라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전문을 통해 “(남북)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남북 간에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국경은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0년 5월 9일)

존재하지 않으며, 남과 북은 ‘국경(border)’이 아닌 비무장지대(DMZ), 즉 휴전협정 시 남북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기 않기로 했고 전면적인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DMZ가 상징하는 차단과 배제는 국경의 한 극단일 뿐이며, 어느 나라의 국경이건 다른 한 극단이 초국경 통합(integration)<sup>2)</sup>까지 펼쳐진 스펙트럼의 한 지점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쉽게 간과된다. 2010년대 들어 연구가 본격화된 북중국경과 접경지역 연구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과 변화를 담아내어 우리의 고정된 국경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DMZ와 남북관계에 집중 해온 보고서와 논문, 언론기사 등 다수가 피상적으로 다뤄온 북중 국경과 접경지역을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한 시도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I. 북중 국경: ‘경험되지 않는’ 남북 국경과의 대조

여기서 검토하는 세 권의 책은 북중 국경이 장벽(barrier or filter)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으며 접촉과 협력(contact and cooperation) 기능을 해왔음에 공통적으로 주목한다.<sup>3)</sup> 국경연구(border studies) 일반이 199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권 해체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르네상스’를 이룬 것에 비하면<sup>4)</sup> 20년 정도 뒤늦은 출발이지만 초국경

2) Martinez, Oscar J., “The Dynamics of Border Interaction: New approaches to border analysis”, *Global Boundaries* (Lond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2).

3) 이옥희, 『북 중 접경지역』 (서울: 푸른길, 2011), 31~35쪽; 이종석,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 (성남: 세종연구소, 2017), 15~16쪽; 강주원, 『나는 오늘날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파주: 글항아리, 2013), 16~17쪽.

(transborder) 실천의 현실과 잠재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국경연구 일반과 방향을 같이한다.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 네트워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옥희의 책 『북중접경지역』은 양국의 접경도시의 연계 현황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다 강화된 초국경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지 전망한다. 이종석은 『북한-중국 국경』에서 북중 국경 관련 역사적 쟁점을 발굴,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최근 접경지역 변화를 담아낸다. 강주원은 첫 책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2013)부터 최근 출판된 책 『압록강은 휴전선 너머 흐른다』(2019)까지 3권의 책을 통해 북중 접경도시 단둥에서 남북한 사람들을 비롯해 중국 조선족과 조선화교 등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단둥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북중 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조선족과 북한에서 거주했다가 귀국 후 단둥에 자리잡아 북중 무역에 종사하는 조선화교라는 ‘네 집단’이 국경 넘나들기를 경제적 기회로 삼아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미시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특히 그의 첫 책은 제목에서부터 국경이 고정되어 있다는 인식에 도전하며 국경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세 책은 모두 연구자가 새로이 발굴한 자료를 소개하고, 현지조사에 기반해 작성한 지도와 수차례 접경지역을 방문해 직접 촬영한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전한다.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지역 관련 정보가 비공개”인데다가 북한 접경지역은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서 조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중국 접경지역에서도 인터뷰나 자료 수집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sup>5)</sup>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국경조약

<sup>4)</sup> Paasi, Anssi, “The Genealogical Approach to Border Studies,” presented at the 4th workshop of Geopolitical Economies of East Asia Research Network (EARCAG-GPE) (Osaka, 26 November 2019).

<sup>5)</sup> 이옥희, 『북 중 접경지역』, 머리말.

내용이 확인된 것이 2000년이며 국경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국경 현장의 시설의 역사나 현황, 계획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렵다.<sup>6)</sup> 국경무역과 국경관광에 종사하며 일상에서 ‘국경을 만들고 허무는’ 중국과 북한, 남한 사람들 또한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안기부에서 나왔습니까’라고 질문할 정도로<sup>7)</sup> 남한사람의 존재에 예민한 지역이라, 북중 접경지역 연구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 접경지역 연구가 제시하는 자료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국경과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 II. 상이한 접근방식의 조화와 보완

우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북한과 중국 국경으로 이해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는 대표적인 오해다. 물론 국제적인 하천경계는 선박 항행이 가능하면 기항항로의 중간선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천 양안의 중간선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 획정은 이 같은 관행을 따른다. 현지 측량을 거쳐 지리좌표를 확정했고, 매 10년 마다 양국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국경선을 공동검증국경선을 재조정한다.<sup>8)</sup> 압록강과 두만강 모두 선박 항행이 이루어지므로 기항항로의 중간을 기점으로 하구까지 ‘선’을 그어 강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북리의 ‘선’ 개념이 아닌 ‘면’ 개념을 채

6) 이종석,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 21~22쪽.

7) 강주원,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34~40쪽.

8) 노영돈·이현미,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체제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제87호 (2010), 289~322쪽.

택한다. 1962년 북중 국경조약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모두 수면으로 하고, 양국이 이 수면을 공유하며 그 관리, 사용, 포괄항행, 어로 및 하천수의 사용을 공동으로 하는”(제3조 제1항) 것으로 규정한다. 이 사실은 2000년 국경문제 관련 중국어판조약집이 발굴됨으로써 알려졌다며, 이종석은 당시 확인된 ‘중조국경에 관한 의정서’, ‘중조국경에 관한 회담 기요’를 발굴해 국경조약 체결을 위한 북중 간 협의 과정과 조약 내용을 보여준다. 북중 국경조약은 국제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비밀조약’이었기에 조약 체결 이후 38년이 지난 후에야 일차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종석은 1차 자료의 충실한 발굴과 독해라는 접근을 통해 1950년대 이후 북중 국경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써 내려간다. 나아가 당시 국제 정세와 중국 내 문서를 독해해 국경조약에 드러난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유추해 기존의 인식에 문제 제기한다. 중국 내에서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평가가 당시에, 현재 연구자들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북한이 백두산을 중국에 팔았다’는 세간의 오해를 바로잡는다.<sup>9)</sup>

강주원의 인류학적 접근은 북중 국경이 ‘면’ 개념이라는 사실이 실제 접경지역 주민의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보여주어 이종석의 역사적 접근을 보완한다. 압록강에 대해서는 “등안(登岸)은 했지만 월경(越境)은 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성립한다. 단둥 사람은 원칙적으로 압록강 너머 신의주에 발을 올려놓아도, 배에서 손만 놓지 않으면 국경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여긴다고 한다. 양국이 공유하는 압록강은 북중 양국 단둥과 신의주 사람이 교류하면서 공유하는 공간이며, 양 국가를 연결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존재한다.

이옥희는 국경조약 체결 시 강 주변의 하천지형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sup>9)</sup> 이종석,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 97~105쪽.

북중 국경 인근 산업시설과 도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홍수나 양국의 제방 건설, 하상도 개발 등으로 유속이 변화해 퇴적과 침식으로 강의 섬이 서로 연결되거나 북한 소유의 섬이 중국쪽으로 육지화되어 하천경계가 아닌 육상경계에 가깝게 바뀐 것이다. 2011년 북중 양국간 합의되었으나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황금평의 경우 중국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것은 북한 소유의 섬인 황금평이 중국과는 고작 도랑 하나를 사이에 둘 정도로 지형 변화가 일어난 때문이다.<sup>10)</sup>

각각은 상이한 접근방식을 통해 접경지역의 상이한 측면을 조망하기에, 상호 보완적으로 국경과 접경지역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한다. 공통점으로는 국경지형의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 북중 사람들의 교류 증가를 통해 국경이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점을 보여준다. 당연하게도, 누가, 어떻게, 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며 세 권의 책은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의 양상과 요인을 설명해 나간다.

### Ⅲ.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현재진행형’ 변화

지난 1월 말 코비드-19로 북중 국경이 폐쇄된 직전까지 북중 접경지역은 무역과 관광, 북한 노동자 고용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며 무역량이 감소한 대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일·다일 북한관광이 활성화되었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양측

<sup>10)</sup> 강주원에 따르면 현재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황금평 인근에는 2006년까지만 해도 국경을 표시하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 강주원,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107쪽.

의 지역도 가시적으로 변화했다. 1996년 이래 거의 매년 북중 국경 현지 답사를 해 온 이종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요즈음처럼 국경에서 양국을 이어주는 다양한 기반시설이 건설된 적이 없었다.” 코로나로 국경이 폐쇄된 현재에도 폐쇄된 현재에도 신암록강대교 북한측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북중 양국 모두에서 국가급, 지방급 사업이 접경지역 변화를 주도했다. 중국 국가급 사업 허룽변경경제합작구 신설과 황금평-위화도/라선 공동개발 공동관리 외에도 중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변경경제합작구 건설과 북중 교량과 커우안 현대화 등 기반시설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민간기업 또한 북한 노동자 고용, 관광협력 확대를 활성화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3개 경제특구 외에도 2013년부터 신규 설립한 지방급 경제개발구 중 8개는 국경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경제 행위자가 초국경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있다.

초국경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옥희는 연결에 기반한 ‘국경 도시네트워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중국 국무원의 동북진흥전략, 지린성정부의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계획, 랴오닝성 정부의 5점1선(다롄-진저우-후루다오-잉커우-단둥) 계획 등 새로운 정책 방향 하에 거점도시가 새로이 출현했고, 기존 국경도시가 경제성장 기회를 맞고 있음을 밝힌다. 이종석은 중국에서 촉발된 개발 추진 외에도, 김정일의 잇따른 중국 방문과 산업시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대외적으로 천명된 경제개방 의지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중의 상호 이해관계와 의지가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한다.<sup>11)</sup>

북중 양국의 경제적 접점이 가시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북중 양국의

11) 이종석,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 207~211쪽.

개발계획이 중첩되어 있으며 정부와 기업 등 북중 양국의 행위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으므로, 향후 북중 접경지역의 변화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종석의 지적처럼 현재 북중관계와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북한문제와 대북제재가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지체시킬 가능성은 여전하다.

세 저자 모두 직접 확인한 북중 접경지역의 현재에 근거해 이후 접경지역의 변화가 더욱 가시적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반도예의 함의를 도출한다. 공통적으로 북중의 변화가 한반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각각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강주원은 남북(중) 만남의 공간으로써 단동의 '현재'에 주목한다. 지난 30여 년 단동에서 네 집단의 '평화'로운 만남과 교류, 경제활동이 이어져 왔던 사실을 촘촘히 되살리고 최근 출판한 책에서도 대북제재 속에서도 단동에서 남북 교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중조 접경지역이 남북 교류와 만남의 또 하나의 축"임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작업이다.<sup>12)</sup>

반면 다른 두 저자는 북중 접경지역의 변화상에 보다 집중한다. 이옥희는 접경지역의 공간 변화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조심스럽게 전하며, 이종석은 국경을 넘어 진행되는 북중 경제협력 확대가 남북 및 남북 중 경제협력의 공간을 열어놓을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둔다. 각각은 연구가 진행되고 책이 발간된 당시 북중관계 및 남북관계 현황을 반영한 것이며 북중 양국의 국가 및 지방 구상, 개인의 경제활동 등 각 연구대상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접경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한반도예의 함의를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와 요인, 각각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

12) 강주원, 『압록강은 휴전선 너머 흐른다』, 271~272쪽, 281쪽.

가 남북 접경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준거로 작용할 것이겠으나 세 책은 각 분과학문 영역에서 기초 자료조사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후 연구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IV. '사실'의 발견이 던지는 더 많은 질문

반가운 것은, 세 책이 북중 접경이라는 연구대상에 주목한 이후 이들이 주목한 '연결'과 '협력'의 시각은 이미 이후 연구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북중 접경지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 국가 차원에서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현장이자, 다양한 개인들이 국경을 오가며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현장으로서 접경지역을 드러냈다. 이 현장의 보다 미시적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양국간 연결과 교류에 힘입은 중국의 도시공간 변화, 북중 생산 네트워크의 성격, 북중무역에 종사하는 조선족의 정체성 탐구 등의 측면에서 양국 교류와 협력의 영향을 '관계적'으로 조망하기 시작했다.<sup>13)</sup>

나아가 국경 넘기(border crossing)을 경험해 온 개인의 경험에 주목해 국경의 비고정성을 포착하는 연구 또한 축적되었다.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 후 중국에 정착한 조선화교<sup>14)</sup>와 북한-중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한 조선화교 또는 '중국연고 북한주민'<sup>15)</sup> 연구는 장소에 따라 외부와 상

13) 지상현 외, 「접경지역 변화의 관계론적 정치지리학: 북한-중국 접경지역 단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권 3호 (2017) 기획논문 참고.

14) 이옥련, 「연변 지역의 귀국화교사회와 북한화교사회의 상관관계 및 역사성」 『한국학연구』 제30권 (2013), 325-355쪽.

15) 최선경, 「중국연고 북한주민의 경계 경험과 에스니시티의 (재)구성: 배제와 포섭의 과정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3권 제3호 (2015), 101-125쪽.

이한 관계를 형성하고, 외부의 상이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이들을 드러내고, 북중 접경지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sup>16)</sup> 경험을 통해서 국경의 의미를 탐색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동’이 야기하는 효과에 주목해 ‘장소’로서의 접경지역에 주목한 세 책과는 접근을 달리하지만 국경 허물기(debordering)와 국경 만들기(rebordering), 이에 수반되는 국가 내, 집단 내의 타자화(othersness)에 이르기까지 북중 국경이 갖는 의미를 질문하며 고정된 국경 인식에 도전한다.

모쪼록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국경을 ‘배제와 단절’로 인식해 온 우리의 상상에서 이론적, 현실적인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길, 그리하여 남북 국경과 접경지역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바라본 북한 접경지역을 넘어 북한에서 바라본 중국과 남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실행될 수 있기 또한 바라마지 않는다.

16) 김성경,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제22권 제2호 (2012), 114~158쪽.

이경수(Lee, Kyung Soo)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북중관계와 로컬의 정치적 동학: 단동-신의주 네트워크와 스케일의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에서 초빙 부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The Incentive system of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a group-based Mobilization: a comparison of Saemaul Movement and ChollimaJakupban Movement」 (2015), 「북중 접경도시의 스케일의 정치: 신압록강대교 건설 18년을 중심으로」 (2018) 등이 있다.

